

휘발유 판매가격 3주 연속 상승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3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리터당 4.4원 올라 1946.7원을 기록했다.

자동차용 경유 역시 2.5원 올라 1746.9원을, 실내등유는 0.4원 상승해 1339.0원을 나타냈다.

휘발유 판매가격은 서울이 리터당 2029.4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1971.7원), 인천(1962.9원)이 상대적으로 비쌌으며 경북(1925.7원), 전북(1929.7원), 울산(1929.8원)은 낮았다.

석유제품 판매가격 변화

(단위: 원/ℓ)

구 분	2010	2011/7	8/5	9/1	9/2	9/3	등 락
보통휘발유	1,710.4	1,934.7	1,933.9	1,935.3	1,942.4	1,946.7	↑ 4.4
자동차경유	1,502.8	1,754.4	1,742.5	1,740.9	1,744.5	1,746.9	↑ 2.5
실내등유	1,076.0	1,351.1	1,341.8	1,339.4	1,338.5	1,339.0	↑ 0.4

정유4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5.0원 떨어진 944.6원으로 4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고, 자동차용 경유도 8.5원 하락해 965.1원을 나타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유럽의 금융위기와 미국 달러화의 강세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함으로써 상승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1/09/26>